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RCH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1



초봄의 daydream

겨울내내 포근하더니 올해는 봄이 일찍 올 것 같다. 2주전만 해도 누렁던 앞뜰 잔디가 점차 푸른 끼를 띄우기 시작했고, 뜰 한 구석에는 수선화, Tulip, Iris 가 엄지 손가락 만한 순을 내 보이고 벚꽃 나무가지도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 가뭄에 타버린 잔디 자리에 씨도 뿌려야 겠고 잔디를 rake도 해야겠다.

철순도 한참 안으로 들어와 소위 삶의 늦가을로 한참 들어와 있는데도 초봄이 되니까 대학에 막 입학한 때처럼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모두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것으로 둘째 손녀 첫 영성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쁜 드레스 하나 선물로 들고 참석하는 것, 매년 꿈꾸는 골프 스코어를 10 정도 줄이는 것(가능할까?), 집사람하고 Paris에 2주 동안 가서 집사람 roommate 들을 거의 50년만에 만나보고 그 다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또 발 가는 대로 다니다 오는 것 등이 있다. '초봄의 daydream'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다.

골든클럽의 새해 행사는 4월1일 신년교례회로 부터 시작된다. 회원들 모두 금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또 골든클럽으로서 같이 했으면 하는 일들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정기적으로 예정된 골프대회, 피크닉들이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행사를 추가할 여유는 있다.

골든클럽도 초봄의 daydream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수년전에 어느 분이 여름에 무료함을 극복하자고 '여성회원 피크닉'을 제한한 것이 이제는 정규 행사가 되었다. 이번 달에는 골든클럽 애호가들이 녹이 다 슬어버린 당구실력으로 좋은 시간을 나누었고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같이 모여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연락주시기 바란다.

윤현남 (공대64)

2023년 신년교례회

새해 회원 전체가 모이는 첫 행사로 신년교례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 모임 장소는 Tenafly, NJ에 있는 Korean Community Center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Fly to the moon"을 부른 신주원, 한국 전통악기의 대가 Gamin, 이탈리아 벨칸토 창법의 테너 황진호를 초청하여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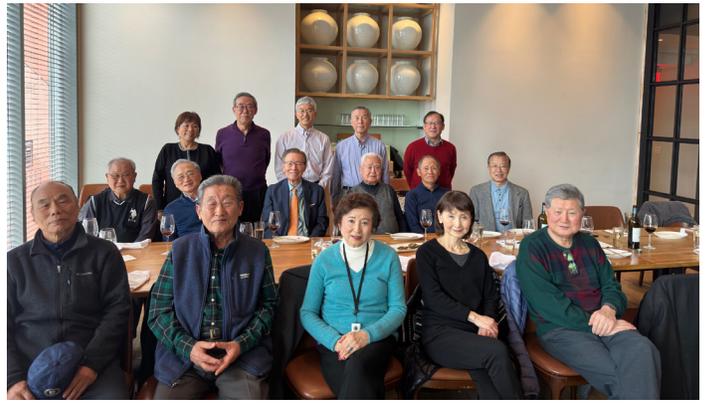
날짜: 2023년 4월 1일 (토)

시간: 오후 4시 - 9시

회비: \$120

등록: 김정필 (201)965-7759 jaykim@keiusa.com

NY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교통편을 검토중이며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뉴스레터 편집팀격려 모임이 가연에서 있었습니다.



2월 16일 골든클럽 첫 당구 모임이 Star당구장에서 열렸습니다.



2월 25일 약대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골든클럽 차기 회장 추천

아래와 같이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3월 10일까지 회장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하신 분들을 회장 후보로 하여 총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월 1일에 신년교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홍종만 회장님은 2021년에 회장으로 취임하여 2년 임기를 3월에 마치게 되어있으며 회칙에 따라 연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12일 Underwood Concert

김정필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부인 강혜미 박사가 지휘하는 Underwood Orchestra가 작년에 이어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 Orchestra Concert를 3월 12일(일) 뉴저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골든클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김정필 사무총장 내외와 여러 후원자들이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Underwood 세계 선교 후원을 위한 Underwood Orchestra Concert'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격려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입장권은 일괄정리하였고, 입장이 '골든클럽 회원'이라고 말씀하면 골든클럽 회원 '별정석'으로 안내하며, 음악회가 끝나면 간단한 뷔페가 준비될 예정이니 참가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참석 예정 회원께서는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일시: 3월 12일(일) 저녁 7시

FOR THE NEXT GENERATION'S MISSION:
뉴 브런스윅 신학교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 모금 음악회

THE UNDERWOOD ORCHESTRA CONCERT

I. SYMPHONY NO. 4 OP. 98
BY JOHANNES BRAHMS
II. HUNGARIAN RHAPSODY NO. 2
BY FRANZ LISZT
III. 풍요로운 열매의 노래 (FULL HARVEST AT SUNGSAK FIELD)
BY YOUNG GYU KIM

SPONSOR & PRESENTER: THE UNDERWOOD ORCHESTRA
CONDUCTOR: KANG HYE-MI
SUNGSAK UNIVERSITY
THE UNDERWOOD ORCHESTRA

SUNDAY MAR. 12, 2023 AT 7:00 PM
CHODAE COMMUNITY CHURCH
100 ROCKLAND AVE. NORWOOD, NJ
201-767-0400

TICKET: \$20
FREE ADMISSION FOR STUDENTS

INFORMATION
MR. JAY KIM 201-965-7759
YOUNG SOON MOON 845-553-0035
MS. KIM 201-962-4433

예매처:



손주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용호 회원



골프장에서 포즈를 취한 회원들



정해민 고문의 쌍둥이 손자 Ian 과 William의 시카고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에 조기 전형(early decision)으로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녁 숙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회원들



2월 22일 김중욱박사님 방문안을 간 홍중만 회장부부



플로리다 골프트립에 참가한 여성회원들



송학린 회원부부가 1월에 남극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플로리다 동창회에 성금 전달

3년차 Florida 골프여행

지난 1월 22 - 28일 동안 West Palm Beach에서 예정된 골프여행 일정보다 며칠 일찍 출발하여 Atlanta로 이주한 곽승용, 한영수 회원을 권정덕, 조달훈 회원과 같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이틀간 골프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월 21일 오전에는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성기로, 김치갑, 이형순/정영자 회원을 숙소로 안내하고 오후 5시 최희덕 Florida 동창회장 댁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가하여 현지 동문들과 인사도 나누고 Wine잔도 주고 받았다. 행사참가자 17명 중 10명은 두 집을 빌려 공동숙소로 사용하고, 7명은 별도의 숙소에 머물며, 1월 23일부터 5일간 Madison Green Country Club, Okeehelée Golf Course, Boca Green Golf Club, Lake Worth Beach Golf Club 및 Colony West Golf Club에서 골프치고, 저녁은 근처 Buffet식당을 주로 이용하였다.

나흘을 같이 골프 치고 나니 수준이 대충 파악되어 기량이 우수한 성기로, 오유섭, 천병수, 김치갑 선수로 champion group을 편성하여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결정전(1등상금 \$100, 2등 \$50)을 열었다. 긴장이 되어서인지, stroke game 결과 천병수 선수가 94타로 1등, 오유섭 선수가 2등을 차지했는데, 골프에 열정을 쏟고 있는 김치갑 선수가 무척 아쉬워하며 다음 기회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한편, 22명이 4선수를 대상으로 \$10씩 betting한 결과, 천병수 선수에 betting한 9명에게 \$25씩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1월 27일(금) 마지막 골프를 마치고 김중권 동문 댁에서 준비한

홍종만 (공대64) BBQ Steak 저녁식사와 가라오케 여흥시간을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사 중 제일 아쉬웠던 일은 작년 골든클럽 골프대회도 빠지 않고 참가했고 열심히 골프 훈련을 해온 윤선구 회원이 왕복 항공편 예약, 참가회비 납부는 물론 골프채까지 ShipStick을 통하여 West Palm Beach에 보내 놓고 만반의 출발준비 중, 부인 윤옥경 여사가 급히 안과 치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이번 여행을 포기하면서 같고 닦은 기량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으니, 다음 기회가 기대된다.

또한, West Palm Beach 지역 Florida 동창회의 특별한 지원과 골든클럽 참가회원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골든클럽 참가회원 17명

공동숙소 이용(10명): 권정덕/홍선경, 김치갑, 성기로, 이형순/정영자, 조달훈/조승자, 홍종만/홍예경

현지 합류(8명): 오용호/오경희, 천병수/천종화, 이영범/이영교, 계동휘, 오유섭

Florida 지역 동창회: 최희덕, 조동건, 윤기향, 김중권, 김인형

이번 여행에서는 Rent car 를 하지 않고 다른 비용도 절감되어 예산여유가 생겨 경비정산 잔액(\$2,113)을 김정필 사무총장을 통하여 골프클럽에 입금 시켰습니다.

유쾌한 일주일

■ 이형순(미대 60)

다녀온 소감을 쓰라고 하신다. 역사 깊고 인상 깊은 곳도 관광하고 다른 곳에서 못 보던 새로운 것을 보던지 듣던지 해야만 쓸 것도 있지만 6박 7일에서 5일을 골프장에서 지냈으니 무엇을 써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뉴저지 보다 putting green 이 빠르더라--- 골프 안하는 분들께 영 재미없는 얘기를 쓸 수도 없고---

West Palm Beach Airport에서 배려 깊은 홍회장님 내외분 마중을 받고 첫날이 시작됐다. 두 집중 한 집은 세 couples, 다른 집은 4명, 개인적으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모든 조건이 한 집이 월등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묵었던 곳이 부자집의 호칭을 받으며 저녁 식사 후 오붓한 모임은 당연 부자집 차지였다. 얼마나 많이 웃고 즐거웠던지---

골프 첫날 최희덕 회장님 댁에서의 저녁 모임은 이탈리아 음식과 전식 후식을 정갈스럽게 마련해 주셨고 화기에애한, 평안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준 두 분께 감사한다. 처음 만난 분 같지 않고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 고교 후배라는 관계서인지 동생같은 친근감과 와 닿았으며 온화한 표정과 음성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다.

Lake Worth Beach Golf Club에서 예약이 있던 날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저녁은 맥주와 맛있는 안주로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19th Hole을 멋지게 즐길 수 있었다.

떠나기 전날 김중권 동문 댁에서 바베큐 디너 파티엔 갈비 구이, 각종나물, 부침, salmon요리, 곁절이, 따뜻한 찹쌀떡, 파인애플, 케익까지---너무 맛있고 다채롭게 준비해 주셨다. 노래방이 시작되자 넘치는 신청자들 모두가 마이크를 잡으면 나가수로 바뀌시는 것 보고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우리는 늙어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 가는 겁니다. 어느 유행가의 가사를 떠올리게 했다. 모두가 즐거운 분위기로 이번 골프여행의 피날레를 멋지게 마무리한 기분이다. 화씨72도에서 83도를 오르내리는 좋은 날씨, 모두가 senior 입에도 불구하고 5일 연속 18홀을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역시 서울대 동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님께 제 시간에 잘 모여서 유쾌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다.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꼭 참석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2+5+3골프여행과 풍선

■ 조달훈 (사대66)

Atlanta에서 두 번, West Palm Beach에서 다섯 번, 그리고 Amelia Island 세 번을 친 골프여행은 절대 힘들지도 지루하지도 않았습니 다. 골프의 매력입니다. 혼자 쳐도 열심히, 둘이 쳐도 열심히, 하수 상수 구별없이 모두 자기 게임에 열중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다 함께 따로따로 즐겁게 노는, 아주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운동입니다. 우리들의 숙식과 골프예약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올립니 다. 특히 좋은 말씀까지 덤으로 주신 광승용 선배 내외분, 파파야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희덕/이희문 목사님 내외분의 과 분한 호의와 환대를 어떻게 갚아야 할 지는 앞으로 큰 숙제입니다.

2 주일 10 라운드 골프와 삼 천 마일 가까운 운전 중에 일어난 일들 과 생각이 많지만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 Amelia Island에서 체했던 일 한 가지와 최근 격추한 중국풍선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풍선은 Alaska, Canada 상공을 거쳐 Montana, South Carolina 상 공을 지나 대서양으로 날았습니다. 고도는 6만피트였고 Myrtle Beach 상공을 지난 후 스파이 짓을 했다고 보고 미공군이 격추했습 니다. 대서양 위에서 격추되었고 잔해들을 수거해서 범법행위를 찾 을 모양입니다. 참고로 국제선 항공기들은 4만피트, 국제우주정거 장 ISS는 백삼십만 피트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련에서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스파이 짓 했다고 격추했었는데, ISS는 매일 지구를 열두번도 넘게 돌고 있습니다. ISS 뿐만이 아니 고 Tesla의 Musk가 올린 수천 개의 위성도 매일 수 차례 씩 지구를 돌고 있고 결국 4만 2000개를 채울 예정인데, 앞으로 여러 나라, 여 러 회사들이 위성들을 띄워 올릴 예정이어서 하늘은 점점 만원사재 가 됩니다. 그리고 풍선 띄우기는 중국만 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하 늘의 전쟁은 오래전에 시작돼 진행중인 것입니다.

Amelia Island는 Florida와 Georgia 사이의 St. Mary's River 하 구의 섬으로 여러 개의 골프장이 있는 리조트 타운이고 또한 넓고 긴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이 좋은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선배 님 덕분에 흥회장 내외분과 같이 사흘 골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 오랜 동안 보고 싶었던 북두칠성을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금성을 보았다고 확신하고 금년에는 수성을 보았다고 생각은 하 지만 시력이 약해서 확신은 못합니다. 요즘은 수성이 밝은 별이지 만 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이 섬의 해변에서 밤하 늘을 보면 한쪽 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고 다른 쪽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은 대서양이고 다른 쪽은 호텔 콘도 등이 밝힌 전기 불빛 오염 때문입니다.

위 두 가지를 놓고 조금 lunatic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수 억만 개의 별들이 있고, 태양은 그중 중간 정도에 있는 평범한 별입 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밤에만 겨우 반정도의 별을 볼 수 있습 니다. 그것도 시력이 약한 사람은 몇 십 개 정도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마친 후 전기불과 다른 일들 때문에 바빠 가끔 푸르른 하늘이 나 구름 낀 하늘만 쳐다 본 듯합니다. 문제는 눈이 밝은 사람도 50 년 전에는 한 번에 사천 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것의 반 정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기 오염과 전기불 때문 에요. 전기불 오염과 기계들이 내뿜는 가스에 더해서 인공위성들도 문제입니다.

1957년에 구소련이 올린 위성 Sputnik 1을 시작으로 해마다 더 많 은 위성들을 올려 지금은 수만 아니 수백만의 space junk 들이 하 늘에 돌고 있습니다. 쓰레기 모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언젠가 우주로 날아 가거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썩지 않을 겁니 다. 대기오염보다 더 심각한 하늘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밤하늘 협회 IDA 같은 단체들이 어두운 밤을 되살려보려 하지만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상에 만들어진 직경 500m짜리 망원경 FAST 에도 만족을 못하고, 지상 백 오십 만 km 위 '하늘'에 JWST 망원경을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로 달은 지구에서 38만 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최신 망원경은 지구에서 발사한 후 2주일을 날 아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6개월의 준비작업을 한 후 원하는 사진 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1957년에는 깨알뿔던 하늘이 점점 인공위성 나무쟁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삼만개 정도는 추적하는 중이고 더 많은 수는 ...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주경쟁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주 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태양처럼 위성을 가진 별들도 많아 그 중 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분명 있을 거라 하며 보통사람 모두를 기 만하고 있습니다. 기만이란 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위 성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고 있는 Voyager 2는 1977에 지 구를 떠나 13년 후 1990년에 명왕성을 지나 지금 남쪽하늘 (Pavo; 20h 10 m, -58o 34') 로 날아가고 있는 데, 앞으로 사만 년을 더 날 아가도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공위성이 가진 관성을 없애 버리면 얼마 후에 태양에 끌려와 불길에 휩싸여 한줄기 플라스마로 변합니다.” 현재 인 류의 모든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우주 어딘 가에 지구보다 좋은 별을 발견한다 해도 우리 인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에 더해서 해를 비롯한 모든 별들이 모두 99% 수소와 플라스마 같 은 간단한 원소들과 보이지 않는 물질 dark matter로 구성되어 있 고 지금까지 단 하나의 유기물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딜가서 지

[6면에서 계속]

겨울철에 좋은 음식

■ 허유선 (가정83)

겨울철의 좋은 음식을 생각해보면, 저는 치킨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는 한국 사람들만큼 오랜 시간을 미국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치킨솥을 맛있게, 감사히 먹어본 기억이 있을 듯합니다. 라면이 한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식사 대용이라면, 우리는 100 년도 더 되었다는 Campbell's chicken noodle soup을 떠올리게 됩니다. 용도도 어찌면 조금 비슷하게 쓰이는데, 국을 끓이다가 맛이 영 안 나면, 어딘가 남았던 라면 스프를 조금 넣어서, 맛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뭔가 모자라는 강통 치킨솥을 기본으로 물을 조금 넣고 양파나 파를 썰어 넣어서, 냉동 만두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간편 만둣국도 주부들이 쉽게 응용하는 레시피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치킨솥을 제대로 끓이려면, 좋은 닭을 통 채로 찬물로 깨끗이 씻은 후 대파와 마늘 등을 넣고 끓이면 국물도 닭고기도 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중요한 비타민C의 공급원이 되는 과일은 orange, lemon, grapefruit 등과 같은 Citrus Fruits을 권할 수 있는데 보통 Navel orange 한개에 들어 있는 비타민 C 양은 성인어린이 하루 필요한 양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네랄의 공급원으로 권할 수 있는 뿌리채소(root vegetables)들은 싱싱한 잎 채소가 많은 여름철과 달리 많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섬유질, 미네랄, 철분 등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 채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양파와 비슷한 Shallot, turnip, beet 등을 한 번쯤 사서 맛보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단백질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견과류와 씨앗들은 심장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칼로리가 많아질 수 있고, 혹시라도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은 잇몸 사이에 끼어든 작은 찌꺼기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섞어서 잘 갈아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견과류는 너무 큰 봉지 것을 사지 말고, 작은 사이즈로 구입을 하고 혹시 큰 분량을 구입했을 때는 조금씩 덜어 놓고 냉동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한국음식이나 비슷한 중식 또는 스시 등을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초이스가 없는 경우 권해 드릴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Burritos입니다. 이 음식을 주문하실 때 real egg를 쓰느냐 하고 물어보면 real egg 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맛에 익숙한 핫 소스와 같이 먹으면 더욱 입맛을 돋우기도 합니다.

어느 집이나 꼭 쟁겨두고 먹으면 좋은 식재료중의 하나가 avocado 입니다. 식사전에 몇 쪽을 미리 먹으면 포만감도 주고 위의 점막 세포나 장기중에 끼여 있는 나쁜 기름기를 제거하는 좋은 윤희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잘 익은 김치는 유산균이 많이 있어서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같은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는 사람과 안 나는 사람은 식사 중 얼마나 김치를 많이 먹었나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과 같이 불고기 같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사람들은 유산균이 들어 있는 김치나 동치미 국물 같은 것을 같이 먹어서 소화를 돕는 장내 좋은 세균이 많아져서 탈이 덜 난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The most wonderful places to be in the world are Someone's thoughts. Someone's prayers, and someone's heart .

저는 좋은 음식은 맛나게 먹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음식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먹은 음식입니다. 결국 인생의 많은 좋은 것들은 “같이 (with)” 하는 것입니다.

[5면에서 계속]

구처럼 다양한 원소와 합성물질이 있고 복잡다단한 동식물이 있는 위성을 찾습니까? 모든 별들의 표면 온도는 수천에서 수만도가 넘어 어떤 유기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별들은 “지구같은 위성 exoplanet”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5000개 이상의 위성들 exoplanets 이 발견되었지만, 우리 후손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여 잔치를 했던 것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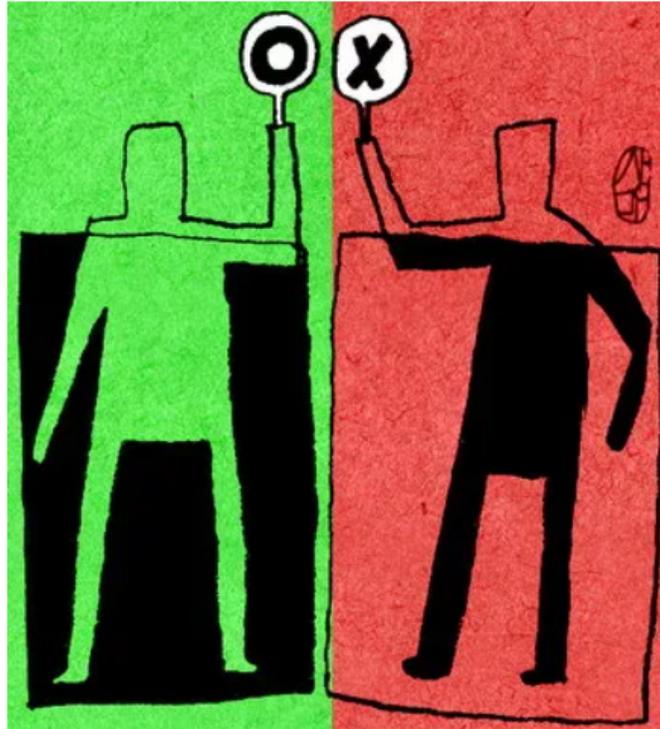
지금 당장 인류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경제력과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피폐해 가는 지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도처에 쓰레기가 쌓이고 바다속과 하늘 온 천지가 오염되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목숨을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분석

■ 곽승용(의대 65)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정치에서 여야간의 초당적 협조,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낯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지향하는 이념이 달라도 대부분 서로 타협하고 절충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다.

반면에 한국의 정치는 어떠한가? 여야의 정치대결은 해방후 좌우의 극한대결, 이념의 차이로 암살, 정치공작, 투옥, 보복의 연속으로 얼룩져 왔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의 차이가 없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비생산적인 갈등이 더 심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다고 하나 그 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갖는 사고의 경향, 즉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분법적 사고 (Dichotomous thinking)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단체에서 부터 국가의 대외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하게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는 한국이 갖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공자의 유교사상에 젖어 있어 잘 분석해 보면 우리의 사고가 유교와 접점을 이루고 있다. 유교가 한국에 미친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 측면,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자들의 가부장적 사고, 직장에서 상사와 아랫 부하직원의 관계, 교회의 성직자와 신도의 관계, 정당내의 계파보스와 구성원 등등은 유교의 상하관계를 구별하고 이에 익숙해지고 당연시해서 마치 왕과 신하 즉 군신관계에 버금가는 사회질서로 가정, 사회 국가의 갈등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런 관계는 이해가 상충될 때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 배반하고 원수지간까지 된다. 또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선과 악으로 갈라져 사색당파로 갈등을 빚고 서로 헐뜯고 욕하며 죽이고 투옥해왔다.

반면에 서양문화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과 유대교와 기독교위에 다원적철학 (쏘크라테스에서 니체에 이르기까지)으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불란서혁명, 자본주의 탄생, 과학의 발전, 공산주의 대두, 양대 세계대전 등 과정을 거쳐 성장 발전되어, 동양의 맹주 중국이 서양에 철저히 패함(아편전쟁)으로 서양이 우월하게 인식

되었고 급격한 동양의 서양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서양의 강점은 다양성, 귀납적 사고, 현실적, 이성적, 물질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동양적인 사상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대두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한국은 유불교의 영향, 한국인의 다혈질, 고려 이조시대 이후 정치의 부정 부패, 끊임없는 외세의 영향 등으로 극심한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되었으나 이 또한 우리의 지정학적 약점으로 내재된 불안에 쉽게 부화뇌동하여 혼란과 갈등으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길게 이분법적 사고를 분석했지만 이분법적 사고의 매력이다. 둘로 나누어 생각하니(black and white, all or nothing) 쉽고 명쾌하고 간단하나 이 매력이 함정이다. 쉽게 빠져들고 안주하며 방여한다. 그러나 자신을 자기 틀속에 한정해 편견과 얽고 좁은 생각으로 틀 밖의 남들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증오하고 배척해 자신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든다.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자신은 그 다양함(Variety)의 하나이지 나만 옳고 선하고 똑똑하다고 여겨, 이분법으로 사고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증오함은 큰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사물을 반쪽만 보고 다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difference)이며 다름이 옳고 틀림이 아닌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음은 덕이며 능력이며 갈등 해결의 첩경이다. 흑백의 사이에는 온갖 색깔이 있다. 빨강 초록 노랑 회색 보라색등 셀 수 없이 많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이 옳고가는 능력과 머리로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고 우리보다 백 년을 앞섰던 일본도 따라잡고 있다. 심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한민족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해 세계에 우뚝 설 것임을 믿는다.

회원 명단 (113명 / 2023-2-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임창우	최학주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임호순	주재욱
강영선	김승호	성기호	윤종숙	정도현	한영수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현남	정수일	한대진/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이강홍	조달훈/	한용희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이민제	조승자	허용웅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상무	정해민	허유선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이준	조상근	홍사만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이대연	주상선	홍정표
권문웅	김종윌	송현자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권정덕/	김창수	송학린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홍선경	김치갑	송혜순	이종대	천종화	홍예경
권영대	김태일	신진식	이종석	최구진	
권태전	김한중	신응남	이준행	최병우	
김영천	김현중	노윤면	이준희	최수용	
김광수	민준기	오용호	이태호	최순재	
김광현	박기환	오유섭	이행순	최준희	
김동건	박상원	오인석	이흥빈	최진영	
김문경	박준구	우규환	임도혁	최철용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2-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Walkill
	25일(목)	여성회원 피크닉
6월	8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15일(목)	Picnic - Rockland Lake State Park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8월	10일(목)	Golf Outing
	18일(토)	뉴욕지역동창회 Picnic
9월	14일(목)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unset Valley)
11월	2일(목)	Golf Outing-Rockleigh Golf Club
12월	9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30일(토)	신년교례회 - KCC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28명 / \$2800/ 2023-2-25)

강에드	손갑수
강영선	신두식
곽승용	신진식
권영대	이상무
권정덕	이전구
김광현	이행순
김창수	정수일
홍선경	정해민
권문웅	주상선
김영천	최수용
김상만	최준희
김종윌	한용오
성기호	홍종만
손경택	홍예경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15명 / \$8300 /2023-2-25)

강에드 200	신두식 200	홍종만 1000
권정덕 300	신진식 300	
김영천 300	이전구 1000	
김광현 200	이행순 200	
김종윌 200	정해민 1000	
성기호 500	최수용 1000	
손경택 1500	최준희 4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2-25)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T) 201-965-7759 (E) jaypkim@keiusa.com



3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영덕 (공대53)
- 김치갑 (의대72)
- 이대영 (문리64)
- 이준행 (공대48)
- 임도혁 (공대59)
- 조상근 (법대69)
- 주재양 (공대51)
- 최준희 (의대58)
- 최진영 (문리55)
- 주재욱 (의대57)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